2025/05/08

[Fixed Income]

백윤민 수석연구위원 yoonmin1983@iprovest.com

5월 FOMC: 기준금리 동결. 신중한 스탠스 유지

- 5월 FOMC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4.25%~4.50%로 동결. 성명서에서 연준은 순수출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줬지만,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을 지속했다고 평가. 다만,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높아졌으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

- 당사는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인하 사이클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유지. 양호한 미 고용지표와 다소 매파적이었던 5월 FOMC 결과로 6월 금리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 다만, 필자는 여전히 금번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미 경제의 위축이 침체를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대응이 너무 늦어지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5월 FOMC, 연방기금 목표금리 4.25%~4.50%로 동결

5월 FOMC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4.25%~4.50%로 동결. 성명서에서 연준은 순수출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줬지만(although swings in net exports have affected the data),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을 지속했다고 평가. 다만,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추가적(further)으로 높아졌으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judges that the risks of higher unemployment and higher inflation have risen)

[도표 1] 2025 년 3 월, 2025 년 5 월 FOMC 성명서 비교

	2025 년 5 월	2025 년 3 월
정책결정	- 연방기금 목표금리 4.25~4.50%로 동결	- 연방기금 목표금리 4.25~4.50%로 동결
경제여건 및 인플레 요인 평가	- **순수출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줬지만,**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을 지속했음을 보여줌. 실업률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되었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음 -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완전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추가적으로** 증대. 위원회는 이중책무(dual mandate) 양쪽 모두에 대한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	-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을 지속했음을 보여줌. 실업률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되었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음 -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완전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대. 위원회는 이중책무(dual mandate) 양쪽 모두에 대한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금리정책 요인	- 위원회는 목표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4.25~4.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 위원회는 추가적인 연방기금 목표금리 조정 규모와 시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 전망 변화, 위험에 대한 균형 등을 신중하게 평가 - 위원회는 적정한 통화정책 설정을 위해 경제전망 정보들이 시사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위원회는 완전고용을 도모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집중,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 금융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	- 위원회는 목표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4.25~4.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 위원회는 추가적인 연방기금 목표금리 조정 규모와 시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 전망 변화, 위험에 대한 균형 등을 신중하게 평가 - 위원회는 적정한 통화정책 설정을 위해 경제전망 정보들이 시사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위원회는 완전고용을 도모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집중,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 금융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
대차대조표 정책	- 위원회는 국채, 기관채, MBS 보유량 축소를 지속할 것. 다만, 4/1 일부터 국채는 월간 한도를 250 억 → 50 억 달러로 축소. MBS 는 월간 한도를 350 억 달러 유지	- 위원회는 국채, 기관채, MBS 보유량 축소를 지속할 것. 다만, 4/1 일부터 국채는 월간 한도를 250 억 → 50 억 달러로 축소. MBS 는 월간 한도를 350 억 달러 유지
찬성 / 반대 위원	- 찬성: Jerome Powell, John Williams, Michael Barr, Michelle Bowman, Susan Collins, Lisa Cook, Austan Goolsbee, Philip Jefferson, **Neel Kashkari,** Adriana Kugler, Alberto Musalem, Christopher Waller,	- 찬성: Jerome Powell, John Williams, Michael Barr, Michelle Bowman, Susan Collins, Lisa Cook, Austan Goolsbee, Philip Jefferson, Adriana Kugler, Alberto Musalem, Jeffrey Schmid, - 반대: Christopher Waller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대차대조표 정책 속도 조정과 관련해서는 반대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정확한 진단이라도 너무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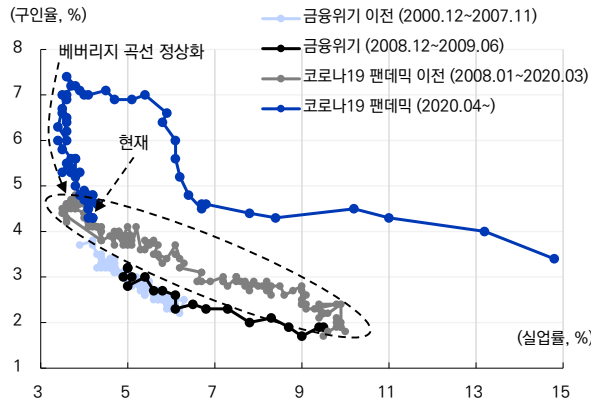
5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4.25%~4.50%)에서 동결. 전술했듯이, 연준은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을 지속했다고 평가. 다만, 연준은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높아졌음을 언급하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

파월의장의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미 관세 정책이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신중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 동시에 현재의 통화정책이 경제의 전개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we believe that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leaves us well positioned to respond in a timely way to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고 언급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미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 특히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필자도 미국 경제가 아직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일부 동의하지만, 미 경제의 하방 압력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 당사는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오던 미국 경제 모멘텀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최근 예상치를 상회한 고용지표도 이전 월들의 수정치를 고려하면, 큰 폭의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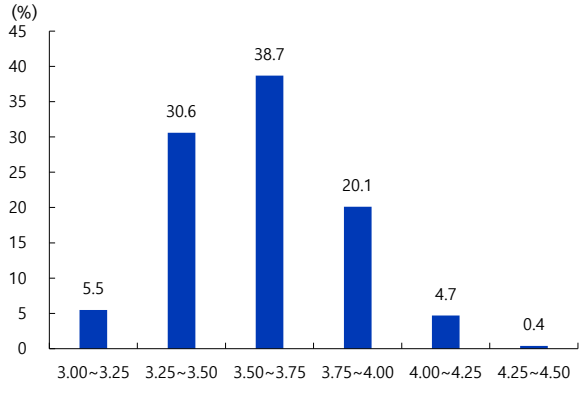
당사는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인하 사이클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유지. 양호한 미 고용지표와 다소 매파적이었던 5월 FOMC 결과로 6월 금리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한 것이 사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높은 불확실성이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도 반영. 필자는 여전히 금번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미 경제의 위축이 침체를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대응이 너무 늦어지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도표 2] 미국 베버리지 곡선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2025년 말 기준 Fed Watch 연준 통화정책 확률 분포



자료: FedWat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5/7일 기준 2025년 12월 통화정책 확률

5월 FOMC 기자간담회 Q&A

Q. 지난 회의 이후 많은 일이 있었음. 관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철회되기도 했으며,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진척되고 있음. 성명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싶음. 지금은 고용과 물가, 어느 쪽에 더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A. 성명서에서 언급했듯, 고용과 물가 양쪽 모두에 대한 리스크가 3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음.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말할 수 없음. 특히 관세정책이 경제, 성장,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 봄.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금리는 적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세와 그 파급효과 데이터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음.

Q. 연준이 실제 조치를 취할 정도로 데이터가 명확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지?

A.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 없음. 현 상황을 보면, 1분기 GDP의 왜곡된 수치를 제거하고 보면 경제는 견고함. 고용시장도 양호한 상태임. 물가는 2%를 약간 상회 중임. 현재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다소 긴축적이며, 작년 가을보다는 100bp 정도 덜 긴축적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우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그 속도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음

Q.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음. 이런 전망 속에서도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A. 2024년을 거쳐 현재까지 실업률은 4% 초반대를 1년 넘게 유지해 왔음. 인플레이션은 둔화해 현재는 2% 중반에서 하단 수준임. 성장률도 2.5% 수준으로 양호함. 하지만, 이번 관세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물가와 실업률의 상방 리스크는 분명 높아졌음. 만약 이번 관세가 실제로 현재 수준대로 시행된다면, 연준의 양대책무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다만, 연준은 목표 달성을 계속 추구할 것임은 명확함. 하지만, 향후 1년간은 그 진전이 정체될 수 있다고 봄. 다시 말하지만, 이는 관세가 실제로 그렇게 시행될 경우임. 현재로선 관세의 규모, 범위, 시기, 지속성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매우 큼. 그리고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말하자면, 2019년에 우리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음. 당시에는 경기 둔화 조짐이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1.6%에 불과했기에 선제적 조치가 가능했음. 하지만 작년 가을에 우리가 한 정책 변경은 선제적이 아니었음.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었음. 지금은 4년 넘게 물가 목표치를 초과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상태임. 현재는 그 초과 수준이 심하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도 있음. 대부분의 예측기관들도 인플레이션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기 약화나 경기침체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음. 물론, 연준은 공식적으로 경기침체 확률을 예측하거나 발표하진 않음. 하지만 지금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한 뒤에야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음

Q. 2021년 공급충격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음. 에너지 비용은 낮아졌고, 주택시장의 불균형도 당시와 다르며, 노동수요는 점진적으로 둔화 중. 임금 상승률도 4% 미만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상품 가격 상승 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A. 기저 인플레이션 흐름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재 인플레이션은 2%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주거 서비스와 비주거 서비스 물가에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이 두 영역은 인플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이 부문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기다리고 지켜보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 경제는 꽤 양호한 상태이며, 정책금리도 잘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함.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앞으로 몇 주, 몇 달 사이에 관세 정책이 어디로 수렴될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영향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될 것임.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기다리는 결정이 명확하다고 판단

Q.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제전망이 바뀔 경우 다음 회의에서라도 정책 스탠스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인지?

A. 우리는 지금의 정책기조에 만족하고 있음. 지금으로선 여전히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전략이라고 생각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며 기업, 시장 참여자, 예측기관 모두가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보는 국면임. 시간이 지나면 연준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임. 지금은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언제 그 시점이 올지는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려움

Q. 작년 잭슨홀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둔화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실업률은 4.2%였고, 지금도 같은 수준임. 그런데 현재는 많은 예측기관들이 실업률 상승을 전망하고 있음. 작년과 비교해 지금은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연준의 용인범위(tolerance)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A. 작년과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랐음. 작년에는 6~8개월에 걸쳐 실업률이 거의 1%포인트 상승했고 그 상승이 매월 꾸준히 이어짐. 당시에는 노동시장에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팽배했음. 그래서 작년 잭슨홀과 9월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에 집중해온 것처럼 노동시장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음. 다행히도, 그 이후로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실업률도 대체로 횡보하며 최대고용 범위 안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지금은 그때보다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줄어든 상태임. 현재 실업률은 다시 4.2% 수준이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모두 상방 리스크가 함께 커진 상황으로 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전혀 다른 국면임

Q.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나 전반적인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약세 신호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함. 예컨대 일정 기간에 걸친 실업률 상승이나 몇 달 연속의 고용지표 부진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지? 이러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우선, 지금은 노동시장이 약세인 상황이 아님. 현재 실업률은 4.2% 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도 양호함. 임금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노동시장에 대해선 전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실업률 수준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참고해 실제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 동시에 물가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함. 최대고용과 물가안정,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어려운 판단이 될 수 있음

Q. 1분기 GDP가 복잡하게 해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전망도 불확실함. 의장 본인의 직관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지? 여러 연준 위원들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둔화가 예상된다고 보는지?

A. 경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동시에 경기 하방 리스크도 커졌음.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양쪽 모두의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이런 리스크는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았음. 그래서 직관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이터의 부재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Q. 지난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비관적 뉘앙스가 강했음. 산업별로 해고가 시작되는 조짐도 있고, 일부 지역에선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으며, 기업들은 투자결정을 연기하고 있음. 이런 흐름은 경제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A. 그럴 수 있음. 다만, 아직은 그런 흐름이 실제 데이터에 나타나진 않았음. 많은 기업과 가계가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나 투자 같은 경제적 결정을 연기하고 있음. 그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경제 데이터에도 반영될 것임. 물론 그 영향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진 않겠지만,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지표상 나타날 수 있음.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실제 경제지표상으로 뚜렷한 둔화 조짐은 보이지 않음.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소비도 활발함. 즉, 지금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건강함. 다만, 사람들과 기업들의 심리 깊은 곳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이 퍼져 있는 상황임

Q. 앞서 올해 금리 결정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에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졌었음. 그때 제시된 가이던스는 이제 상황 변화로 인해 무의미해진 것인지?

A. 알다시피, 우리는 모든 회의에서 경제전망요약 (SEP)을 내놓지는 않음. 이번 회의는 그 요약이 없는 회의였고, 내부 위원들의 전망을 새로 취합하지도 않았음. 따라서 3월 전망과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6월 회의에서 SEP가 다시 발표될 예정. 현재로서는 정책금리가 적절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포함될 수 있고, 동결 가능성도 있음

Q. 실업률이 오르고 물가도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한쪽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다른 쪽을 위축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연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계획인지?

A. 연준의 양대책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 가령, 한 변수가 다른 변수보다 훨씬 목표에서 멀어졌다면, 그 쪽에 우선순위를 두게 됨.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분명한 우선과제였고, 그 당시 고용시장은 매우 과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충관계(trade-off)는 아니었음. 각 변수가 목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임. 지금은 그런 판단을 내릴 필요도 없고, 근거도 없음

Q. 올해 1분기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이러한 수입 급증이 연준의 향후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A. 1분기에는 수입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 이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에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는 선제 수입(pull-in demand)을 했기 때문임. 그 결과, 수출입 차이가 급격히 떨어졌고, 이로 인해 1분기 미국 GDP 역성장에 큰 기여를 했음. 다만, 이 효과는 2분기에는 반전될 가능성이 큼. 즉, 수입이 급감하면서 오히려 GDP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국내 민간 최종 국내구매 (PDFP) 지표 또한 참고하고 있는데, 1분기 PDFP는 3%로 상당히 강했음. 다만 이 또한 관세 우려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돼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요인들은 일시적인 통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지만, 연준의 정책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Q. 지금까지 소프트 데이터에서는 해고 우려,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신호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도 연준이 그것이 하드 데이터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궁금함. 특히 하드 데이터는 시차가 크거나 관세 효과로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데, 소프트 데이터가 잘못된 경고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또한, 소프트 데이터가 매우 비관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실제 지표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음. 지금의 소프트 데이터를 해석할 때, 연준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A. 소프트 데이터가 잘못된 경고일 수 있다는 우려는 아님. 지금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고용 시장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낮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아직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확신이 없다는 것임. 더 많은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명확한 선택이며 FOMC 위원 전원이 기다리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과거 수년간 데이터를 보면, 심리지표와 소비지출 간의 연관성은 약했음. 하지만 이번 경우는 속도와 규모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를 단순히 무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 역시 우리가 기다리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임.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하면서도 실제로는 활발히 소비했는데, 지금도 그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 있음. 하지만 현재처럼 이 정도로 큰 폭의 심리 변화는 드물기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사람은 없음. 우리는 지금이 단정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판단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부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기준일자_2024.12.31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6.9%	2.5%	0.6%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